투혼의 광주FC, 창단 첫 K리그 4연승 도전

내일 수원 삼성 상대 29라운드 원정경기 … 엄원상·헤이스 주목
K리그2 전남은 대전과 대결 '24경기 연속 원정 무패' 도전 나서

잘 쉰 광주FC가 투혼을 앞세워 창단 첫 K리그1 4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11일 오후 7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 삼성을 상대로 K리그1 2021 29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8월 24일 성남과의 홈경기에서 3연승을 내달린 뒤 꿀맛 같은 A매치 휴식기를 맞았다.

연승 행진 속 승점 28점을 채운 광주는 최하위에서 벗어나 9위까지 치고 올랐다.

좋은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한 광주는 분위기를 이어 구단의 새로운 역사에 도전한다.

광주가 수원 안방에서 노리는 타이틀은 창단 첫 K리그1 4연승이다.

광주는 K리그2에서 뛰던 2019시즌에 6연승(14~19라운드)을 달린 적이 있다. 1부리그에서는 3연승이 최고 질주였다.

기록 도전에 나서는 김호영 감독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튼튼한 조직력으로 2연패 뒤 3연승에 성공했고, 골키퍼 윤보상과 이진형의 부상 속에서 윤평국이 '깜짝 활약'을 하면서 연승의 주역이 됐다.

김종우, 두현석, 박정수, 한희훈 등이 베테랑의 부상 복귀 속 '광탄소년단'이 물오른 실력으로 어필하고 있다.

엄원상과 엄지성, 허율이 좋은 컨디션으로 출격을 준비하고 있고 지난 라운드에서 골 맛을 본 헤이스와 김주공도 공격에 힘을 실어준다.

이찬동-이순민-김원식의 탄탄한 중원과 이한도-알렉스의 센터백 듀오도 건재하다.

상승세의 광주와 달리 '전통의 명가'로 꼽히는 수원의 최근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수원은 최근 8경기에서 2무 6패를 기록하면서 3위에서 7위까지 내려왔다. 전반기 팀의 질주를 이끌었던 김건희와 정상빈, 최성근도 부상으로 이탈했다.

방심은 금물이다. 상대전적에서 광주는 수원에 3승 5무 10패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경기 종료 직전 터진 이기제의 프리킥 골에 3-4 역전패를 당하기도 했다.

광주가 상승세를 이어 수원 열세를 딛고 4연승 고지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원정 무패'행진 중인 전남드래곤즈는 '먼데이 나이트 풋볼' 경기를 통해 신기록 경신에 나선다.

전남은 지난 28라운드 경남 원정에서 2-0 승리를 거두면서 23경기 연속 원정 무패(10승 13무) 기록을 만들었다. K리그2 최다 원정 무패기록이다.

전남은 13일 오후 7시 30분 한밭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K리그2 29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를 통해 또 다른 기록 달성에 도전한다.

3위 자리도 걸려있는 승부다.

김천상무가 승점 51(14승 9무 5패)로 K리그2 선두를 지키고 있고, 2위 FC안양이 1점 차로 선두 싸움을 하고 있다.

이어 대전이 13승 6무 9패(승점 45)로 3위에 올라있다. 전남(11승 11무 6패·승점 44)은 1점 차로 그 뒤에 자리하고 있다.

전남이 대전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최다 원정 무패 기록 경신과 3위 탈환까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상승세를 이어 수원삼성을 상대로 K리그1 첫 4연승에 도전한다. 사진은 5월 23일 수원과의 홈경기에서 김종우의 골이 나온 뒤 기뻐하는 광주 선수들. 〈광주FC 제공〉

에마 라두카누(150위·영국)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준준결승에서 올해 도쿄올림픽 단식 금메달리스트 벨린다 벤치치(12위·스위스)를 2-0(6-3 6-4)으로 물리쳤다. 2002년생(만 18세 10개월)으로 아직 만 19세도 되지 않은 라두카누는 예선 통과 선수 최초로 US오픈 여자 단식 4강까지 진출하는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US오픈 테니스 여자단식 '10대 돌풍'

라두카누·사카리 4강 진출
조코비치는 츠베레프와 대결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와 알렉산더 츠베레프(4위·독일)가 US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5750만 달러·약 673억원) 남자 단식 준결승에서 맞대결한다.

조코비치는 9일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 10일째 남자 단식 8강전에서 마테오 베레티니(8위·이탈리아)에게 3-1(5-7 6-2 6-2 6-3) 역전승을 거뒀다.

앞서 열린 경기에서 로이드 해리스(46위·남아공)를 3-0(7-6〈8-6〉 6-3 6-4)으로 따돌린 츠베레프가 조코비치의 준결승 상대다.

츠베레프는 올해 조코비치의 '골든 그랜드 슬램' 희망을 깨트린 선수다.

올해 도쿄올림픽 남자 단식 4강에서 조코비치와 츠베레프가 만났는데 츠베레프가 2-1(1-6 6-3 6-1) 역전승을 거뒀다.

이번 시즌 호주오픈, 프랑스오픈, 윔블던을 석권해 도쿄올림픽과 US오픈까지 휩쓸었다면 한 해에 4대 메이저 대회와 올림픽 금메달을 석권하는 '골든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수 있었던 조코비치는 츠베레프에게 덜미를 잡혀 '골든 그랜드 슬램' 꿈이 깨졌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한 해에 4대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모두 쓸어 담는 '캘린더 그랜드 슬램'이다.

이 기록은 1969년 로드 레이버(호주) 이후 52년째 남자 단식에서 나오지 않는 대기록이다.

상대 전적은 조코비치가 6승 3패로 앞서 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 맞대결에서 패하면서 최근 맞대결 5연승 행진이 끊겼다.

츠베레프는 도쿄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웨스턴 앤드 서던오픈 우승 등 최근 16연승 중이다. 이에 맞서는 조코비치는 올해 호주오픈부터 메이저 대회 26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다.

조코비치는 US오픈에서 2011·2015·2018년 등 세 차례 우승했고, 츠베레프는 아직 메이저 대회 우승이 없다. 츠베레프의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은 지난해 US오픈 준우승이다.

한편, 2002년생 에마 라두카누(150위·영국)가 예선 통과 선수 최초로 US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5750만 달러·약 674억원) 여자 단식 4강에 올랐다.

라두카누는 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 10일째 여자 단식 준준결승에서 올해 도쿄올림픽 단식 금메달리스트 벨린다 벤치치(12위·스위스)를 2-0(6-3 6-4)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이번 대회 예선부터 시작한 라두카누는 총 8경기를 무실 세트로 장식하며 4강까지 진출하는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라두카누는 마리아 사카리(18위·그리스)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연합뉴스

KBO 2022 신인드래프트 10대 1 경쟁

고교·대학 등 1006명 대상
총 100명 선발…13일 진행

KBO의 미래를 뽑는 2022 신인드래프트가 13일 진행된다.

이번 드래프트는 오후 2시 서울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에서 열리며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760명, 대학교 졸업 예정자 240명, 기타 6명 등 총 1006명을 대상으로 한다.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드래프트가 진행되면서, 최대 100명의 선수가 KBO리그 구단의 유니폼을 입게 된다.

지명은 2020년 팀 순위의 역순으로 진행된다. 한화를 시작으로 SSG-삼성-롯데-KIA-키움-LG-KT-두산-NC순으로 지명권을 행사한다.

단 트레이드를 통한 '지명권 양도'에 따라 지명 순서와 지명수에 변화가 있다.

앞서 롯데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KT가 가지고 있던 3라운드 28번 지명권을 양수받았고, 키움은 SSG가 가지고 있던 4라운드 32번, NC는 롯데가 보유했던 4라운드 34번 지명권을 행사하게 됐다.

이에 따라 NC와 키움이 최대 11명을 지명할 수 있고, KT와 SSG는 9명까지 선택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드래프트 현장에는 소수의 구단 관계자만 참석하며, 지명은 행사장과 각 구단 회의실을 화상 연결하는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명 대상 선수와 가족도 현장에 참석하지 않고, 미디어의 현장 취재와 야구팬의 관람도 불가하다.

각 구단이 호명한 이름은 KBO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미국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 오른 지터
"모든 야구 기자들에게 감사, 한 명만 빼고"

한 표 부족 '만장일치 입회' 실패

미국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의 '전설' 데릭 지터(47)는 한 표가 부족해 메이저리그(MLB) 명예의 전당 만장일치 입회에 실패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다.

지터는 9일 미국 뉴욕 쿠퍼스타운에서 열린 MLB 명예의 전당 입회식에서 "모든 야구 기자들에게 감사드린다. 한 명만 빼고"라고 말했다.

지터는 지난해 1월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 투표에서 만장일치가 유력했지만, 전체 397표 가운데 396표를 얻어 1표 차이로 좌절됐다.

많은 양키스 팬과 유명 인사들이 "지터를 뽑지 않은 기자는 도대체 누구냐"며 분노했지만, 해당 기자가 누군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개인의 투표 결과가 100% 공개되는 최우수선수(MVP), 사이영상, 신인상, 올해의 감독상 투표와는 달리 명예의 전당은 기자가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 한 비공개다.

지터의 양키스 동료였던 마무리 투수 마리아노 리베라는 2019년 명예의 전당 투표에서 425표를 모두 받아 사상 최초로 만장일치 신화를 썼다.

지터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 양키스 외길을 걸으며 통산 3465안타를 쳐내 역대 6위에 올랐다.

올스타에 14차례 뽑혔고, 골드글러브를 5회 수상했다. 은퇴 후에는 마이애미 말린스를 인수해 구단주에 올랐다.

지터의 명예의 전당 입회식에는 양키스의 전설인 C.C.사바시아, 호르헤 포사다, 티노 마르티네스가 참석했다.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과 패트릭 유잉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수많은 양키스 팬들이 쿠퍼스타운에 운집했다.

MLB 명예의 전당에 오른 '양키스의 전설' 데릭 지터. /연합뉴스

지터는 "환호성을 듣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잊고 살았다"며 선수들에게 "경기는 팬들 덕분에 진행된다. 항상 팬들을 먼저 생각하고, 야구를 하는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예의 전당 헌액식은 애초 지난해 7월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1년 이상 늦게 개최됐다. /연합뉴스